세이스이지 절

진언종(眞言宗) 사찰인 세이스이지 절은 16세기 후반부터 시작된 이와미 은광의 역사에서 크게 눈에 띄는 존재였습니다. 주변 곳곳에 은 광맥이 펼쳐져 있는 센노산 중턱에 자리한 세이스이지 절은 관리들과 평민들 모두에게 존경을 받는 대상이었습니다. 이와미 은광에서 가장 풍부한 은 광맥 중 하나를 발견한 갱부 야스하라 덴베에가 1602년에 주맥에 도달하기 전 기도를 드린 장소가 바로 이 세이스이지 절로 알려져 있습니다. 막부의 재원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야스하라가 포상으로 도쿠가와 이에야스(1543~1616)에게 하사받은 화려한 도후쿠(귀족이나 고관들이 입는 장식용 상의)는 세이스이지 절에 기증되었습니다. 도후쿠는 현재도 사찰의 소유물이기는 하지만 진품은 교토국립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세이스이지 절이 현재의 위치로 옮겨진 것은 1878년으로 이전된 부지 자리에 원래부터 있었던 사찰의 건물은 세이스이지 절의 본당으로 새로 쓰이게 되었습니다. 본당에는 11개의 얼굴을 가진 자비심 많은 보살 십일면관음의 금박상이 안치되어 있으며, 격자 모양의 천장에는 세이스이지 절에 자금을 기부한 무사와 상인들의 가문 문양이 장식되어 있습니다. 현재 세이스이지 절에 있는 산문(사찰로 들어가는 문)은 이와미 은광의 주요 신사 중 하나인 사히메야마 신사를 관리하는 사찰의 산문이었던 것으로 1931년에 이전되었습니다. 산문은 한 쌍의 석상이 지키고 있는데 우측에는 오대명왕 중 하나이자 악마와 불교의 적들에게 분노를 터트리는 부동명왕이, 좌측에는 사천왕 중에서도 가장 위상이 높아 강력한 수호신으로도 여겨지는 비사문천이 서 있습니다.